

세민황례가인간에잉금으로잇섯는데
고집이시고마음이사나운양반으로서
만민백성을궤롭게굴고,불법을불시하야
불도잇는사람을험한벌에처단하며
포악한짓하다가죽어지다
죽어서저승을가서보니
죽어저승간인간들이박망이들을들고
세민황례가죽어온다하니.심복한뜻드리며
이승째의원수를갑허주자하고,덤벼들어가다
져승처사가못한다고만류하며
져승왕에게데려드러가니
그만디옥으로가처버리다.그리하야져승왕이
만사를생각하야,탄복하고잇슬째
그전붓터죽어서저승가잇든백성들과
새로저승간사람들이
그저승왕앞에수업시모여들어
세민황례는이승에잇슬째
우리들에게억울헌돈을만히빼아섯스며
췌업는사람들췌잇다고하야
못견데게굴고죽여버리고하며
포독헌짓만하얏스니
원수를갑허줍서하고,원정을들거늘
져승왕이세민황례를불러다가
슬푼듯이하는말이,너이고약한놈아
이승에서못할짓을만히하야
에모한사람을괴롭게굴고죽이고
건달로사람의돈을빼여먹엇스니
그째에못할짓한것만침올혼일을하며
못사는사람잘살게하고,죽은사람살니고
건으로먹은돈을췌다갑허주어라하매
세민황례민망해야하는말이
올흔일할거야말고라도
돈이야어데잇서갑으겟습니까.그리하니

저승왕이 용심을 내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네가 이승에서
건 먹은 돈을 다 엊지 하야 버리고
이제 봇터 엊지 하겟단 말인고. 만년동안
베 염통에 살려도 콧 탄 말이냐 하니
세 민황 데가 이승에서는 과연 잘못 하였습니다
하고 빌고 빌며 저승왕이
돈 언마만 빚 저줍서 하거늘
과연 저를 살여 주면. 이승에 가서
납 분버릇 곳 치 옵고 선한 마음 먹어
만인적 선하와 돈을 버러 갑 허들이 겟사오리다
그러하니 이승의 매일 장상을 아는 아하거늘
몰으 겟습니다 하매
이승에 매일 장상이 돈을 만히 가저잇스니
그 돈을 빚 저 췄다가. 이승에 가서
그 사람에게 갑 허 주라하고
돈 궤 궤 직이를 불러서. 네 돈을
이 세 민황 데에게 내여 주라고 명령하니
그 돈을 빚 저서. 그 만흔 사람들에게 갑 허 두고
자기 저승 궤에 가고 보니. 단지 나록한 뭇 밧게 업다
저승왕에게 물어. 어찌 하야 저의 저승 궤에는
나록집 한 뭇 밧게 업 소잇 가하니
너는 세상에서 나무 거공 것 만만히 먹고
남에게 공 것 주어 본 일은 업다
단지 어렷 슬째 동내 늙은 이에게
나록집 한 뭇 준 것 밧게 업다
살 엉슬째 활인 을 만히 하야야
저승 궤에 재산이 만하야 지는 것이다
그러면 엉썬 것이 활인 지덕이 오이 가
베 곱흔 사람 밥 주고. 웃업는 사람에게 웃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돈 주고 하는 것이 활인 지덕이다
직 만인적 선을 하야 야하는 것이다
어서 속히 이승으로 나가서
만인적 선하고 도 라오 너라
그리 하야 너가 다가 보면. 어력 송아지 가나서서
길을 인도 하야 주겠다고 하리라

그러나그송아지의말을듯지말고
곧은길로만나가거라.쏘가다가보면
힌강아지가길을인도해야주겠다하리라
그러나그말도듯지말고
곧은길로만바로가다보면
검천낭이라는체사가잇슬터이니
그체사안테물으면.이승으로갈수잇슬이라
이승으로오다보니.과연어력송아지가그리하고
쏘힌강아지가그리하나
저승왕의식힌대로하야.고든길로만오다보니
검천체사가잇슴에.길을물을은직
당신이세민황뎨임니가하다
그러타고하니.그러면이리로따려오시요
얼마쯤쏘차가니.엇谮문을열며
컴컴헌데로만들어가면
이승으로갈수잇다고말하다
그리로오드니.금년체사가속히가시요하며
등을바드니.턴디소갓흔데로텀벙하고떨어져지다
짬짝놀라고게여보니
그곳이이승이되어.자기도이승사람이되다
직시만조백관의조회를열리고.조사해야보니
매일장상은신을멘들어팔고
그마누라는술장사를하면서
살고잇다는것을알다
그리하야세민황뎨는헐파리몸을채리고
야행을허다가매일장상의집으로들어가다
웨방사람덴김니다하니
그매일장상이다정스럽데들어오십시오
그리하야들어간매일장상은
술을팔어달나고하니.술상을정성스럽게차리고
가져다놋커늘.술석잔을먹고술갑을물을은즉
한잔에두푼식육푼만냅시요하다
그는무삼연고이뇨하니
다른집에서두푼을바드면한푼을밧고
다른집에서너푼을바드면두푼을밧고하는것은
내집에는그전붓터항상잇는일입니다

이것이적선인가생각하며.세민황례는
멋칠후에다시매일장상의집으로가서
신을한배팔어달나고하다
그리하니신한배를더내여주거늘
그연고를물으니
신한배를사는자에게두배를내주고
두배를사는자에게네배를내주고하는것은
내집에잇서서불변의례규이웨다한즉
이것도적선인가생각하고도라간후
또멋칠만에매일장상의집으로가서
돈을열량만빌려달라고하니
그리합시요하며.선선히열량을내여주거늘
세민황례가말하되모른사람에게
돈을주었다가안갖어다주면어찌리요
그러니옹삭하시거든갖어다썼다가
쏘생기거든갑허주시요.그러나돈이안생기거든
언제짜지던지안갖어다주어도조흐니
족음도걱정하실것업습니다하고
길거히우스면서데답하다
매일장상이돈열량을밧고나오면서
이런것이정말만인적선이로구나
이리하면서매일장상은
수만명의불상현사람들을살려주고
수만량의돈을달은사람들에게
건으로먹엿슬것이다.그러니매일장상의
저승궤에는돈이그득이차고잇는것이로구나
이리생각하며.퍽교화를밧게된다
돌아와서.세민황례가직시조회를열리고
적선지도를닥그기위하야.여러가지방침을
의론하니.령의정대신이말하기를
완전무결한적선지도를닥그려면
팔만대진경을내여와야합니다
그러면누가어대를가서내여올것인가하고
의론을거듭하던뜻에
호인대사라는신하를식혀서.극락세계에보내고
팔만대진경을내여오도록하게된다

호인대사를불너서,극락세계의
팔만대진경을내여오라명령을하니
호인대사는어느영이라거역할수잇스리요
극락세계가어는쌍어는구석에붓튼줄도몰으는
호인대사는허공을우러러축도하고
아무목표도업시가다가
죽어지면죽어저라하고
이쌍이막다다른곳까지만
거러가보자는생각을가삼에품어
발이돌아가는대로만거러가고거러가고하다
가다가엇찌한험상스런칭암절벽의
중간에이르러,어쩔줄을몰으고
정신이흔겁할째,어데서인지
호인대사호인대사하며불오는소래가들이거늘
정신을가다듬고사방을두루살펴
말소래의주인을찾으니
사람의흔적도보이지아니하다
그러나자괴를부르는소래는연하야들림에
호인대사용괴를뽑내고말하기를
귀신인가생인인가,나를살녀주옵시요하니
나도죽어가는사람인데
어찌하야달은사람을살리리오만은
이리로뛰여찌려지시요하는소래가들리다
그리찌려지면죽지안소하니
죽지안을터이니,걱정말고뛰시요하는소래가
더욱명확허게들리어오다
주저하는호인대사는죽엄을각오하고내여뛰니
그곳에문답하든사람이잇는데
그사람은산갓흔바위틈에잽히여잇고
간신이대구리만밧그로내밀고잇다
당신의일홈은무엇이냐고물으니
빠른개비노라고하고,웨이곳에와서
이런곤경을당하게되고잇는야하니
세상에덴기면서포학헌짓을만히하기까닭에
옥황상례가궤를마련하고
천년간을이런벌을쓰게한것입니다

그리하여천년만에호인대사가
이곳을기나가거든이돌을열니게하야나오고
제를사하야호인대사를도와주라고하엿는대
지금에속그천년이되엿습니다
그러면내가이돌을어찌하야열릴수잇느냐고
호인대사가물으니.당신의손으로
이돌을밀며는얼마던지열릴수가잇을것입니다
그러거늘호인대사가연약한손으로
한번밀치니.산갓흔바위가한하게열리고
빠른개비는펄적히뛰여나오고.무한히사례하다
그리하여내억제에만메달니고
튼튼이달려붓터썰어지지만마시요하며
호인대사를업어.한번용명을치니
베게갓치절벽우으로뛰여올으다
절벽에서풍덩실바다로썰어지니
거게넓다란길이열니매.그길로무한이걸어가다
가다가보니압해망망한펄바다가생겨남에
룡왕으로들어가서
작으마한배를어더다가.그배를타고
수만리를넘어가고.그다음청수바다황수바다
백수바다흑수바다적수바다를기나서
극살세계로올나가고.사실내막을저저히말하야
소망하든팔만대진경을내고희색이만면하야
쏘빠른개비와벗하야오던길을뒈도라오다
그리하여몬저기나가던곳을건너오고넘어와서
넓은벌판조흔길에나오거늘
지금은호인대사가흔자라도
본국을향하야가는데걱정이업게되거늘
빠른개비가말하되.나도호인대사덕분에
귀향을풀리고.호인대사도나덕분에
조흔세상을무사히구경하고
당신의소원하든바를달성하게되엇소
피차간에귀인만나죽는목숨살렸스니
이다음에언제다시길거운낫빛으로
상봉하기로하야.이만갈립시다하더니
그의그림자가허공으로살어지고

호인대사혼자몸이되어.세민황뎨압까지
돌아오고팔만대진경을올니다
주야로축원하며.호인대사가팔만대진경을
무사히내여오기만바라고잇던세민황뎨는
희열을못이기여.호인대사를키특하게생각하며
무한히칭찬하며.직시높은베슬을식혀주고
만조백관의조회를열어.매일장상을불으고
매일장상이앞에온즉
저승간때의사실만단을이약이하고
이승온후에매일장상의집에
차저가던일짜지이여서저저히말하고는
네가그렷케만히적선을한것은
나에게퍽이나큰교시가되고.내짜지라도
이다음붓터활인지덕을베풀게되였다하며
매일장상을실컷칭찬하고감사하며
쏘이어서너는나의게칭찬밧는것보담도
저승으로간다면저승왕의
칭찬은떳곱절이나더할것이다
그리고너의저승궤는내가본째보담도
지금에는더욱부러나고잇슬것이며
네가죽어가서차지할째는
멧곱절이나더불어나게될것이다
이러하니매일장상은오히려비웃는듯
불쾌한듯이미소하며하는말이
그러나소인은칭찬밧기를질거워하지안습니다
그뿐아니오라.오히려붓쓰러워합니다
세민황뎨가이상스럽게생각하며
그것은웬일인고.너의일삼든
만인적선활인지도가장하지아니한가
너의덕분으로내짜지라도
오늘에더욱이선한맘을먹어서.선한일을하야
저승왕에게칭찬을밧게되지아니하얏는가하니
매일장상이머리를가로흔들면서
소인은원간부터남에게
한잔을바듬을실혀하는바이나
소인의생각한만인적선활인지도는

수만의한운도닥그지못하엿습니다
아직도밥업시굼는사람,옷업시썰니는사람
온갓불상한사람이세상에가득하니
엇찌만인적선을하고
활인지덕을닥것다고하겟습니까
소인은세상에모든불상한사람들을
구제하지못한오날에는
저승을간다할지라도낫이압허서
저승왕을대할수가업겟습니다
소인은아즉손붓치지못한일이넘우나만하고
할일이너무나태산갓치잇스니
여기서는족음도만족할수업습니다
이리하니세민황제가크게감동하야
지금에자고가얼마나잘하는이
매일장상에게쩌돌든것을부쓰러워하며
온세상의불상한사람들을
모조리구제하여야하리라는것을
새삼스러히통감하다
그리하고저승에서빌여쓴돈을
저승왕의명령에의하야갑허주노라하고
그돈에구변을체워서내여주니
매일장상이굿게거절하며
소인은지금까지남의게빌여준돈을
구변짜지합하야바더본적이업습니다하거늘
세민황제가말하되
이것은저승왕의명령에의하야주는바이니
반다시바더야한다하며,강제로맺기다
그리하야세민황제는
모든것을매일장상에게의론하며
팔만대진경도보고,불도법당고도
모든활인적선지도를마련하다

아키바·아카마스, 『조선무속의 연구 上』, 대판옥호서점, 1938, pp.480-496.